

## 다문화 상담자의 초기 발달에 대한 질적연구

본 연구는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다문화 상담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심도 있게 이해하여 다문화상담자의 초기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08개의 개념, 46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여 범주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축코딩과 선택 코딩을 통해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다문화 상담자의 경험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문화상담자의 초기발달이 갖는 특징을 논의하였고, 전통적인 상담 접근보다 유연한 상담 접근이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에 대한 상담자 교육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상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초기발달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다문화 상담, 상담자 초기 발달, 근거이론

### 서론

최근의 한국 사회는 다양한 민족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2014년 1,569,470명, 2019년 2,216,612명으로 5년 동안 70만 명이 증가하였다. 총 인구 대비 비율로도 2014년 3.1%에서 2019년 4.3%로 1.2% 상승한 수치이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입국자의 수는 절반 이상 크게 감소하였지만(통계청, 2022), 결혼이민자의 수는 2017년 153,649명에서 2021년 166,711명으로 증가해 왔으며(법무부, 2021),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비중 또한 2017년 5.2%에서 2021년 5.5%로 지속적

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1) 이를 볼 때 우리나라가 최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부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 일자리 교육과 일자리 소개 등이다(윤향희, 전세경, 2015)

다문화 이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이주민 개인의 심리적 문제까지 다차원

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 가운데 31.2%는 지난 1년간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새로운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감소시키고, 정체감 혼란, 우울, 불안 등을 가져올 수 있다(서경민, 2015). 그러나 주변의 지지자원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나란블락, 유금란, 2021). 따라서 이에 대한 개입으로 진행되는 다문화 상담은 이주민들의 적응상의 여러 문제와 심리적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지원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이다(주은선, 이현정, 2010).

공공 영역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이 있다(김인규, 손요한, 2020). 그러나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1인가구 등 갈수록 확장되는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인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종사자들은 방향성의 부재로 혼란감을 경험하고 있으며(손서희, 김미영, 2019) 전체적인 상담인력 또한 부족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상담자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근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어 기관에 남아 있는 상담자들에게 부담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지영, 2012; 김경화, 20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자들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가 63.4%인 점과 근무한지 1년 이내에 퇴사한 상담자가 42%에 달한다는 연구결과(이혜승, 2010)는 다문화 상담자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다문화상담자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상담자 발달 연구에서 도출된 요소들과 더불어 특정한 문화적 역량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상담자의 문화적 상담역량이란 상담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 혹은 전통적 상담 훈련과 더불어 다문화상담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차별적 전문성을 가리킨다(주은선, 이현정, 2010).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중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문화적 인식으로,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타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문화와 집단에 대한 지식으로, 내담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셋째,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 기술로, 기존의 이론과 개입 전략들을 내담자의 문화적 맥락에서도 적절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McPhatter, 1997; Sue, 2006; 이현정, 2014). 즉, 다문화상담자는 상담자가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성 외에도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진 내담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인식, 실천가적 태도를 요구받게 된다(Sue, 2006; 윤희미, 2009).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다문화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발달해 나가는 과정이

일반 상담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실제적인 상담 기술을 습득하고 인격적 성숙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담자의 초기발달 과정에서 다문화상담자들의 경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임한나,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상담자들이 상담자로서의 전문성발달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상담이 이제 막 발전하는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상담자의 초기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전문성발달에서 지니게 되는 특성들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해하고 드러내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다문화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막연함과 모호함을 넘어 실제적 경험에 기반을 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상담자의 교육 및 훈련에 실제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다문화 상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초기 발달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들이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발달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전문성발달을 촉진하였는지를 탐색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담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적 배경, 가치관, 생활양식에 있어서 다른 상담으로 정의하되, 문화적 차이에 국가, 인종, 민족에 의한 차이

는 협의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초심상담자에 대한 기준은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송수경·구자경의 초심상담자에 관한 연구 동향(2017)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상담 경력 3년 이하, 석사 재학 이상, 인턴 중이거나 인턴 수료자인 경우를 초심상담자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석사 졸업 후 다문화 내담자와의 상담 경험이 3년 미만인 상담자를 초기 발달 단계에 있다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상담자는 초기발달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2. 다문화 상담자는 초기발달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3.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다문화 상담자의 전문성

현대 사회에서 다문화 상담이라는 학문적 개념은 이민자들이 사회 구성원의 상담 부분을 차지하는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다문화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적 배경, 가치관, 생활양식이 다른 상담 관계를 말한다(Sue, 2006). 다문화상담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동시에 다양성에 대한 존중, 즉 서양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인 상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의미도 갖고 있다. 다문화 상담은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간중심주의적 접근에 대한 보완으로 하나의 총체적 이론을 지향하며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간주의 심리학을 잇는 제4세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Peterson, 1994; 한재희, 2011)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 중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의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다문화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원만히 상호작용하고 타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옥경, 김연수, 이방현, 2007).

문화적 역량이란 다문화상담자를 포함한 다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 언어, 계층, 인종, 민족, 종교 등의 문화적 차이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Sue, 2006).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인식, 지식, 기술의 세 가지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Weaver, 2005). 문화적 인식이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문화의 소산임을 인식하고, 그것이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지식은 내담자의 역사, 전통, 가치체계, 세계관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내담자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기술은 기존의 이론, 원칙들이 다문화 집단에 적용될 때 갖는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유연하게 적절한 개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연희, 2007).

Sue와 Sue(2008)는 이상적인 문화적 역량을 갖춘 상담자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 문화적 기술을 가진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 편견, 예상 개념, 개인적 한계, 인간행동에 대한 추정 등의 인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둘째, 문화적 기술이 있는 상담자는 부정적인 판단 없이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에 대해 세계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셋째, 문화적 기술을 가진 상담자는 자신과 다른 문화의 고객과 작업할 때 적절하고, 관련성 있고, 민감한 중재전략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상담자들은 상담자로서의 전문성과 더불어 문화적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문화적 기술로써 지역사회 기관을 잘 파악하고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에게 통합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 상담자 발달 이론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는 1953년 Fleming을 필두로 상담자의 훈련과 교육을 위한 슈퍼비전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Fleming은 상담자의 발달 단계나 수준이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담자의 경험 수준에 따라 학습방법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모방 학습, 교정 학습, 창의적 학습으로 학습 방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상담자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으

로 '수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발달 모형을 제시한 것은 Hogan(1964)이다. Hogan은 상담자의 이론적 오리엔테이션과 무관하게 일련의 연속적이고 위계적인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발달 수준을 상담자의 의존성-자율성, 동기, 자신감을 준거삼아 4수준으로 구분하였다. Hogan의 상담자 발달단계 모형은 이후의 상담자 발달모형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후의 연구인 Loganbill, Hardy, Delworth(1982)의 3단계 발달 모형에서는 발달 수준을 구분하는 준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그 준거는 상담자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슈퍼바이저를 대하는 태도, 상담자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는 상담자의 인지적 특성과, 상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기술 숙련도, 정서자각, 자율성, 이론적 정체성, 개인차에 대한 존중, 상담 목표와 치료계획, 상담자가 되려는 개인적인 동기, 전문적인 윤리이다. 3단계 모형에서는 상담자의 발달 단계를 정체기, 혼란기, 통합기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오정희, 2007).

한편 Blocher(1983)는 상담자의 인지적 발달에 초점을 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학습심리학과 행동변화심리학 및 인지발달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슈퍼비전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와 상담자 간의 관계 및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Blocher의 모형은 상담자를 위한 발달적 학습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Stoltenberg(1981) 또한 인지적인 관점으로 상담자의 발달에 따른 인지적 복잡성의 성장을 가정하였다. Stoltenberg는 Hogan의 모델을 보다 확장하여 상담자 복잡모

델(CCM : Counselor Complexity Model)을 만들었는데, 상담자의 동기, 자율성, 자신감에 따라 상담자의 발달 단계를 4수준으로 제시했던 Hogan의 모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추가했다. 이후 Delworth와 함께 한 연구에서는 CCM에 Loganbill, Hardy와 Delworth의 모델까지 접목하고 수정하여 통합 발달 모델(IDM: Integrated-Development Model)을 내놓았다.

Stoltenberg와 Delworth(1988)의 통합적 모형은 상담자 발달 모형의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검증되어 온 모형(최한나, 2005)이다. IDM에서는 자율성, 동기, 자기 알아차림과 타인 알아차림을 발달의 세 가지 축으로 삼았으며,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구분하는데 3개의 구조와 8가지 영역개념을 도입하여 상담자의 발달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3가지 구조는 상담자의 심리적 속성으로 자각 수준, 상담에 대한 동기, 슈퍼바이저에 대한 의존을 준거로 한다. 8가지 영역은 개입기술, 평가기술, 대인평가, 내담자 개념화, 개인차 이해, 이론적 접근, 치료목표, 전문가 윤리이다. 이 8가지 영역은 상담자로서 변화가 일어나는 행동 및 태도 영역이며 학습해야 할 교육내용이 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론적 개념 모델이며, 개인 슈퍼비전에 국한된 개인 상담 경험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Skovholt와 Rønnestad(1992)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험적 연구 방법을 통해 상담자 발달 과정에 개인적인 삶,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상담자들의 전문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상담자의 경험에 구

조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전문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상담자들은 기존에 배운 것을 상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그러나 전문성이 발달해갈수록 전문적으로 개별화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상담 스타일과 개념화 방식이 외부에서 내부 지향적 형태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 자기성찰이 핵심 역할을 하고, 획득된 지식에서 자기 구성적 지식으로 발전하며, 불안이 감소된다(권경인, 2007; 안현미, 2013).

상담자 발달 관점에서는 초기 발달 과정의 상담자를 상담 기술이 부족한 상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라는 직업 정체감의 발달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개인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초기 발달의 상담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상담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발달상의 과제로 이해하도록 돕는다(전정운, 한재희,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경험을 거시적 안목과 과정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갖게 되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로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개인 특성적인 것과 발달적으로 겪고 있는 것을 구별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용이해지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상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발달 수준을 알게 되면, 현재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현재 자신에게 준비되어 있는 부분과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로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시점에 초점을 두어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심홍섭, 1998).

이상의 다양한 상담자 발달이론은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상담자라는 전체 집단이 공유하는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 공통적인 특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담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상담과 같이 특정한 상담대상이나 전문영역을 초점화하여 전문성을 발달해가는 상담자들의 경우, 이들이 당면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전문성 발달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다문화 상담의 분야에서 초기 발달을 경험하고 있는 상담자는 일반적인 상담자 발달의 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와 함께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띄어야 하므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자의 초기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초기 발달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다문화 상담자들의 경험과 전문성 발달의 특징을 이해하고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상담자의 초기 발달 과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목적 표집을 하였다. 연구참여

자의 선정 기준은 첫째, 상담의 여러 분야 중 다문화 상담자로서 경험을 쌓기로 선택한 상담자, 둘째, 현재 다문화 내담자가 방문하는 다문화 관련 상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 셋째, 상담자로서 적절한 훈련을 받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로 정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 관련 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 다문화 기관에서 상담 실무자로서 일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 중 다문화 상담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것을 확인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참여자	연령	성별	상담 경력	다문화관련기관 근무 경력
1	30대	여	3년	1년
2	30대	여	3년	1년
3	40대	여	4년	1년
4	30대	여	4년	2년 8개월
5	50대	여	4년	1년
6	30대	여	3년	1년 2개월
7	50대	여	10년	3년

연구참여자 7의 경우 전체 상담경력이 10년으로 다른 연구참여자들과의 편차가 있으나, 다문화관련기관에서의 상담 경력이 3년으로 다문화 역량이 중요한 다문화 상담자로서는 초기 발달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분석 시에도 초기 경험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담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상담자의 초기 발달을 밝히기

위해서 근거이론적 접근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연구된 바가 많지 않거나, 기존의 사회현상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데 유용한 접근이다(Rita&Phyllis, 2001). 상담상황은 내담자들이 상담자 및 상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이면서, 상담 현장에서의 주요 환경인 상담자는 참여자와 같이 주도적으로 의미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특수한 상호작용의 변수를 가진다는 점에서 근거이론 방법으로 연구하기 적합하다(한영주, 2010).

## 절차

### 자료 수집

연구참여자의 모집을 위해 먼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의 목록을 만들고,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하여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다. 많은 기관에서 업무상 어려움의 이유로 연구 참여를 거절하였으나,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가 있는 경우 기관의 허락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직접 연구참여 동의서를 전달하고 연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기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인터뷰는 1~2회 진행하였고,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였다. 인터뷰에서 사용한 질문은 표 2와 같으며, 인터뷰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근거이론의 절차(박승민 등, 2012)에 따라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론적 포화가 되었을 때 참여자 모집을 중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다문화 상담 경험이 몇 개월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는 연구 주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7명의 연구 참여자를 포함하였다

####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개방코딩 단계에서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자와의 인터뷰 녹음자료를 전사한 원자료는 참여자 한 명당 평균 14쪽(최소 8쪽에서 최대 24쪽)이었다. 원자료를 한 줄씩 읽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미단위로 구분하여 개념을 명명한 후 유사한 개념들을 묶고 범주화하였다. 의미단위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의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의미단위의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개념명명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때로 연구참여자가 사용한 생생하고 묘사적인 표현(in vivo coding)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원자료를 면밀히 살펴 원자료에서 표현된 것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으며, 틀에서 벗어나서 사고하여 가능성 있는 모든 의미를 고려하려고 노력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패러다임 모형을 사용하여 범주와 하위범주 간 관계를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

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도식화하였다. 그리고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 연결을 탐색함으로써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였다. 선택 코딩은 범주들을 통합시켜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추상화할 수 있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고 모든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강민지, 2011).

#### 연구 방법론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th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연구의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사실적 가치’란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패러다임 모형과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연구 결과가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적용가능성’이란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초기 발달 과정의 다문화 상담자 2인에게 연구의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고 이를 연구결과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일관성’은 연구가 비슷한 참여자와 비슷한 설정에서 반복되었을 때 그 연구 결과가 동일한지를 의미한다(박승민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3인의 전문가들이 자료분석을 진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질적연구방법론 수업을 수강

하고, 근거이론방법론으로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과정생 3인이었다. 또한 질적연구를 다수 출판하고 방법론을 강의 하고 있는 상담심리학 교수 1인이 연구의 전 과정, 분석과 결과기술을 검토하였다. ‘중립성’ 이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Guba와 Lincoln(1985)은 질적 연구에서 중립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편견과 사전 지식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2. 인터뷰 질문표

번호	질문 내용
1	다문화 상담의 길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습니까?
2	다문화 상담과 일반 상담의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다문화 상담을 처음 시작하실 무렵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것이 일반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어떻게 달랐는지 회고해 주십시오.
4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5	다문화 상담자로서 보람을 느꼈던 경험과 좌절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6	좌절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7	당신이 다문화 상담자로서 성장하도록 도운 결정적 경험이 있습니까?
8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습니까?
9	당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10	다문화 상담자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어떤 요소가 당신을 계속 다문화 상담자로서 일하게 합니까?

## 결 과

다문화상담자들의 초기발달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08개의 개념, 46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그림 1의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고, 핵심범주 순으로 아래에 기술하였다.

###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 분석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발달하게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사건, 변수, 그리고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조건들을 말한다(Strauss&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함’ ‘다문화 내담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음’ 이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우연한 기회로 시작함’ 은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연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상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관이 통합되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상담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담자를 상담하게 된 것이다.

여기 입사 하면서 다문화 센터와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상담팀 직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맡게 되면서 제가

하게 된 경위도 있었는데 (연구참여자 7)

지 않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문화 내담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음’은 다문화 상담을 하게 된 상담자의 특성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상담에 대해서 일반 상담에서 다루는 것들에 다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것일 뿐 다르

맨 처음 상담 시작할 때 다문화만 하자 라든지 그런 특별한 그런 구획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상담 시작할 때 그냥 성인 상담을 하고 싶었지 뭐 한국 가정만 해야 된다 뭐 누구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연구참여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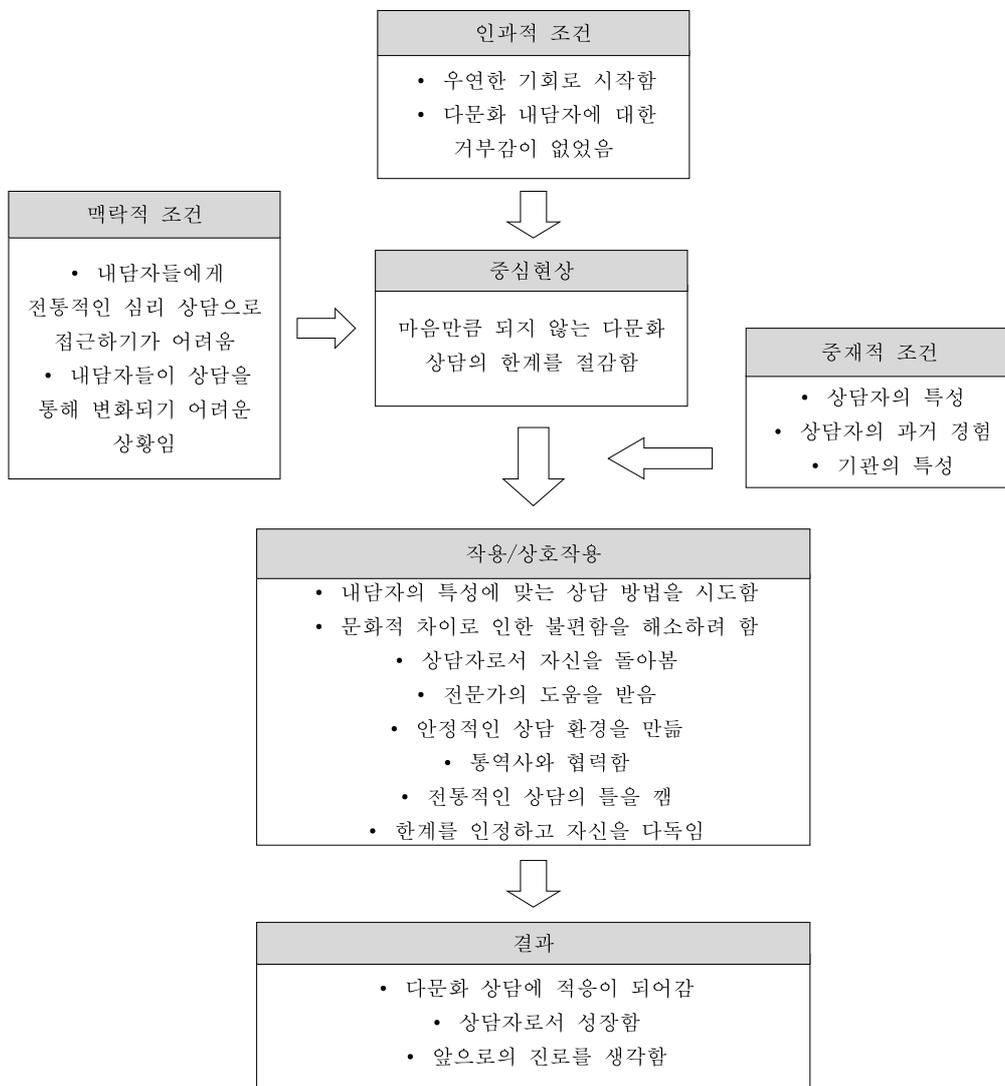


그림1. 다문화 상담자의 초기 발달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중심 현상은 연구 참여자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Strauss&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마음만큼 되지 않는 다문화 상담의 한계를 절감함’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상담의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고민하며 내담자와 소통하려 애쓰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상담을 하면서 일반 상담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였다. 다름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처음 상담하는 것 같은 긴장감과 낯섬을 느끼기도 한다. 공들여 하고 있던 상담이 갑자기 조기종결되고, 내담자가 약속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일이 빈번해 허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내담자와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내담자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상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를 의식하며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들 또한 각각의 국적에 따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통역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상담자 앞에서는 알아듣는 척 하기도 한다. 언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미묘한 감정 단어들을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단어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경험하는 것들도 다르다. 너무 다른 문화 때문에 도무지 내담자가 공감이 안 되기도 한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내담자를 이

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고, 연구 참여자들은 그것이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 상담은 언어적으로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제가 무슨 단어를 썼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우리나라는 이런 단어가 없다. 통역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연구참여자 1)  
다문화상담 할 때 아 내가 한국인으로 상담을 하는구나 하고 언뜻언뜻 하게 되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는 한국인의 의미로서 느껴졌던 거기 때문에 자꾸 한국인의 시각에서, 기준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부부상담 하는데 통역이 끼니까 이 한국인 남편하고 나하고 말을 하고 이 결혼이주여성하고 통역하시는 분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안에 상담실 안에서 편이 갈리는 느낌? (그렇게) 그렇게 연합이 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6)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배경을 의미한다.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들은 상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라포 형성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변화되기 어려운 성향을 가졌거나 환경에 처해져 있다. 따라서 ‘내담자들에게 일반적인 심리 상담으로 접근하기 어려움’과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변화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마음만큼 되지 않는 다문화 상담의 한계를 절감함’이라는 중심 현상의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통적인 상담자의 역할만으로는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에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다문화 내담자들은 상담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막연히 당면한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고 상담에 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내담자들이 생업 등의 문제로 상담에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거나, 가족을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기종결이 되는 것도 잦은 편이라고 하였다. 또 내담자가 기관에 불 일이 있어 방문해야 할 때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등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심리 정서 지원에 목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문제 해결 당장 분가하고 싶다 당장 경제권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런 걸로 (연구참여자 7)

정기적으로 회기로 진행되는 상담보다 일회성 상담이 되게 많아요. 회기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되게 불규칙적인 거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고 3주 만에 오시고 한 달 만에 오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회기 상담이라 하기 어렵죠. (연구참여자 4)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변화되기 어려운 상황임’은 다문화 내담자들의 특성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다문화 내담자들이 오랜 기간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한국인 상담자에게도 기대가 크지 않으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때 상담실을 찾거나 주변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변화를 불러오기 어렵다고 하였다.

본인이 원해서 찾아오는 자발성 상담이 별로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가족에 의해서 상담에

의뢰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다 시 어머니 편이고 남편 편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8)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조건들로,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Strauss&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특성’, ‘상담자의 과거 경험’, ‘기관의 특성’이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특성’은 다문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성격을 가졌고, 그 성격이 다문화 상담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초기 발달 과정의 상담자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문화 상담자들의 상담에 영향을 미친다. 그 특징들은 크게 상담 이론과 현장과의 차이를 느껴 혼란스럽거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시적인 상담을 하게 되고, 내담자에게 역전이를 느끼는 것 등이었다.

이왕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해야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아니고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다양한 것을 하는 게 좋아요. 나의 다양성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고 (연구참여자 1)

다 쏟아주고 싶은 거죠. 내, 나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 전문용어로 투사적 동일시가 되는 거. 뭐 전이 역전이니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내 자신 보는 거 같았어요. (연구참여자 6)

‘상담자의 과거 경험’은 연구 참여자

들이 그 동안 쌓아온 각자의 경험을 의미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외국 생활을 해 본 경험으로 인해 이주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일하는 기관에서 이주민들을 자주 마주치면서 이주민의 삶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하였다. 또 다문화 상담 관련 수업을 듣거나 센터의 사례발표를 통해서 다문화 사례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오기도 했다.

왜냐면 저도 \*\*(외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를 하게 된 거 같아요. (...)다문화 내담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 나 알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 상담하면서 참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되요. 그게 얼마나 절박한 건지.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런 건 이해가 되요. \*\*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연구참여자 3)

‘기관의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기관이 가지는 특성을 말한다. 기관에 따라서 통역사가 기관 내부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외부에서 부르기도 하였는데, 기관 내부에 소속되어 있는 통역사의 경우 의사 소통이 더 원활하여 상담에 도움을 받기 쉽다고 하였다. 또 상담에 영향을 주는 행정업무가 어느 정도인지도 기관에 따라서 달라졌다.

외부에서 부르거나 다른 센터에서 부르거나 아니면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저희가 자원봉사로 통역을 시켜드릴 때가 있어요. 자원봉사 통역해주는 분들한테 뭔가 상담 교육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를 교육 없이 간단히 상담 전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

할거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연구참여자 4)

저희는 통역분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좀더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이 되는 편이라서 그냥 대화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통역 하시는 분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서 (연구 참여자 7)

작용/상호작용은 경험하고 있는 중심현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다루어 가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들을 말하며, 중재적 조건과 현상간의 역동적인 반응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로서 자신을 돌아봄’,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려 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 ‘안정적인 상담 환경을 만듦’, ‘통역사와 협력함’, ‘새로운 방법을 시도함’,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다독임’이 작용/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방법을 시도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내담자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상담을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술치료, 원예치료, 심리검사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에 집중하고 내담자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는 등 내담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도구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나라 말로 자기나라 식으로 하는 게 편하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언어를 배제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비언어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거 듣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분이 보이는 몸짓, 눈짓, 행동 그런 거에 더 집중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걸 잘 관찰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되요. (연구참여자 3)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려 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내담자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시도들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의식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실수하지 않을까 멈칫하며 말조심을 하기도 하고, 내담자와 통역자에게 혹시 내담자가 실수를 한다면 꼭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내담자의 문화를 잘 알기 위해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문득문득 생각하고 말을 좀 제 식대로 안 하고 조심을 하는 거 같아요. 가끔 말하다가 멈칫해지는 게 있어요. 내담자에게 어떻게 들릴까 생각하게 되고. (연구참여자 1)

제가 구조화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일을 하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얘기해달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잘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조심한다고 해야되긴 하는데 저는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모르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냥 상담하기 전에 만약 이야기를 하시다 제가 말에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요. (연구참여자 4)

‘상담자로서 자신을 돌아봄’은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점검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며 상담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상담 장면에서의 자신의 개입을 평가하였다. 또 자기성찰을 통해 가지고 있는 틀과 편견을 알고 인정하였으며, 편견으로 인해 실수할까봐 걱정하였다.

제가 틀이 많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조심하는 거 같아요. (...) 그리고 내가 이럴 때는 내 가치관 내 신념이 앞에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캐치가 되니까 (...) 혹시 내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을 위해 슈퍼바이저나 다문화교육 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슈퍼비전을 통해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해하기도 하고, 문화에 따라서 자신이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깨닫기도 하였다. 또 슈퍼비전에서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서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 다문화상담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의 피어 슈퍼비전에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상담 과목을 수강하거나 다문화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워 가고자 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센터들이 있는데 거점을 통해서 그룹으로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슈퍼비전을 그룹으로 받아요. 교수님도 다문화 상담도 많이 접해보시고 (...)교수님 슈퍼비전을

들으니까 위안이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오히려 내담자를 위한 거라는 걸. 슈퍼비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 이 한마디 들은 게 굉장히 그래 괜찮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4)

다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읽어야..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그쪽에 강의를 하나 신청을 했어요 들어보려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니까.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참여자 3)

‘안정적인 상담 환경을 만듦’은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조화를 공들여서 하였다. 또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관기관을 적절히 활용하려 하였다.

이거는 좀 상담자들이 소화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은 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다문화상담에서는 그게 되게 효과가 있거든요 주변의 지지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잘 알고 있고 내담자한테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는게 참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일반 상담의 경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참여자 1)

내담자한테 도움이 되려면 다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상담자적인 거 말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뉴스도 그렇고 (연구 참여자 3)

‘통역사와 협력함’은 연구 참여자가 상담에서 내담자를 위해 통역사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역사에게 상담 교육을 하거나 통역사와 적극

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통역사와 협력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외부에서 강사 불어서 1회기 정도는 \*\*\*\*센터에서 하시는 분 불러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는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거하고 저희 기관에 걸쳐서 통역선생님이 통역하시면서 전달 하고 싶은 것들 통역사 역할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짧지만 이틀에 걸쳐서. (연구참여자 4)

끝나고 난 뒤에는 제가 이제 듣기도 하지만 어떤 개입이 되었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런 답을 얻기 위한거다 이런것까지 설명을 해야만이 그 다음상담에 편안하거든요 그런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더욱 심도있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전통적인 상담의 틀을 깬’은 연구 참여자들이 상담 회기가 진행될수록 학교에서 배워 왔던 전통적인 상담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방법을 찾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태도는 내담자로 하여금 더 마음을 열게 했다.

여기서 앉아서 상담만 하기에는 정말 안되겠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상담중단하고 나가자.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데로 가자. (···) 스스로 보살핌이 없잖아요 다들 보살핌이 어떤 건지 경험하게 제가 하죠 아니면 우리 집 데려가서 원예도 하고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것들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연구참여자 8)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다독임’은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 상담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좌절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상담의 한계를 인정하거나 지난 상담 경험에서 의미를 찾고, 내담자와 다음을 기약함으로써 자신을 다독인다고 말했다.

정말 의사소통이 더 잘 됐다더라면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걸 얘기하고 더 많은 걸 다룰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인정하고 그래서 것들을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환경적인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하는 (연구참여자 7)

그래도 내담자가 취업이라던지.. 많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것도 좋았고 내담자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서 좋았고 보람을 느꼈죠 (연구참여자 3)

결과는 대처전략인 작용/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의미한다(Strauss&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담에 적응이 되어감’, ‘상담자로서 성장함’,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함’이 결과로 나타났다.

‘다문화 상담에 적응이 되어감’은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 상담에 적응이 되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대하는 것이 예전처럼 어렵지 않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였다.

처음엔 긴장은 아니지만 뭔가 좀 다르긴 했었던

거 같아요. 좀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의사소통도 그렇고 뭐 어떨까 그런 거. 걱정 아닌 걱정도 좀 하게 되고 조금은 달랐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그 안에서 뭔가 안정되게 서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긴장은 안 되요 (연구참여자 7)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틀이 많이 깨지는 경험을 하였고, 내담자를 문화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제 틀이 많이 깨진 거 같아요. 다문화 상담을 하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그런 틀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내담자들이 회복이 되면, 다문화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내담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약간 상담사처럼 상담을 다 해줘요. 서로 케어를 해주고. 내담자들이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멘토 역할을 잘 해서 그 친구 하나만 회복하면 하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런 영향을 확 주는 그런 경향성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보람을 느껴요. (연구참여자 5)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함’은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 상담을 계속할 것인지를 재고해 보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상담자로서 일하는 것이 상담자로서 의미가 있고, 더 깊고 넓게 이 의미를 키워가고 싶다고 했다.

상담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의미를 계속 계속 의미를 계속 뭐라 해야 되나 키워간다고 해야 되나? 의미를 더 깊게 갖는 거. (연구

참여자 6)  
막연함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없는 거 같아요. 만나서 부딪히고 부딪혀서 얘기 해 보면은... 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

## 핵심 범주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핵심범주는 ‘한계 안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며 성장하기’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내담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로 다문화 상담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상담을 처음 접하며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다. 다문화 배경의 내담자들은 일반적인 심리 상담으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상담을 통해 변화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내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방어적이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언어적 차이로 내담자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깊은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없었다. 내담자와의 문화적 차이로 공감도 되지 않아 내담자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담자들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만을 바랄 뿐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상담에 오지 않는 등 잘 따라와 주지 않았다. 통역자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지만 통역자 또한 상담 교육을 받지 않은 이주자이기 때문에 간신히 의사소통을 할 뿐 상담이 겉돈다. 상담 장면에서 통역자와 내담자만 소통하고 상담자가 소외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상담을 시작하

면서 일반 상담을 할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담을 하는 느낌이기도 했고, 유독 긴장이 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절실히 느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이 한국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편한 감정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최선을 다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 장면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자기성찰을 하며 상담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또 안정적인 상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었고, 구조화에 공을 들였다. 내담자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상담 외의 현장에서 이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려고 노력하였다. 상담할 때에도 내담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의식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이 내담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였다. 슈퍼비전을 받거나 다문화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내담자가 필요로 할 때에는 유관기관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또 통역사에게 상담 교육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통역사와 협력하여 상담을 진행하고자 했다.

또 연구 참여자들은 태도적 측면에서 유

연하게 사고하게 되었다. 내담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방법을 시도하고, 전통적인 상담의 틀에서 벗어나더라도 내담자에게 더 깊이 있게 다가가려고 애쓴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면서 다문화 상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하며 내담자의 자원을 발견하게 되는 등 상담자로서 조금 더 성장해 나갔다.

##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상담자들의 초기 발달경험을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다문화 상담자는 초기발달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둘째, 다문화 상담자는 초기발달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셋째,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다문화 상담자들이 초기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마음만큼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낌’ 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담자와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 다문화상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마음만큼 다문화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우연한 기회에 다문화상담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문화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나 특별한 차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다문화상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문화 내담자들의 상황은 참여자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일반상담의 접근으로는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황적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돕고 싶은 마음만큼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상담자로서 초기발달과정에 있는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나름의 시도를 하면서 전통상담의 틀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자신이 만나는 내담자의 문화 차이에 대해 공부하면서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거나, 그들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방법을 고민하며 혼자 찾아서 시도해기도 했다. 때로는 다문화에 익숙한 타분야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통역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내담자에게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상담실에 국한된 전통상담의 틀을 깨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그동안 배웠던 상담이론과 기법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 반복되는 좌절감에 소진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다독이고 기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려는 자기관리의 노력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극적 역할과 특성들은 다문화 상담자가 초기 발달 과정에서 지니는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상담자들의 초기발달과정에는 상담자 개인이 갖는 성격적 특성, 상담자의 과거 경험, 소속된 기관이 갖는 특성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특히 전통 상담과 달리 적극적 정보수집과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는 다문화상담 장면에서, 개인이 가진 성격적 특성과 기존에 경험했던 다문화 생활 등은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통역사의 존재 여부, 물리적 상담 환경등을 결정짓는 기관의 특성은 상담자들이 다문화상담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앞으로 진로를 고려하는 결과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상담과 일반 상담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문화 상담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와의 언어적 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어려움을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히 다문화 내담자들이 단지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상담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상담과 상담자의 역할부터 이해시켜야 했다. 내담자가 원하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느낌과 내담자들의 심각한 호소문제와 열악한 환경은 연구 참여자들을 소진시켰고, 내담자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면서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위주원(2013)은 다문화 상담자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에서 다문화 상담자가 상담과 사회복지 사이의 정체성 고민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 다문화 상담은 초기 시작 단계로, 대부

분의 다문화 상담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담자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또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일부 참여자들도 사회복지사로서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경험이 다문화 상담자로서 조금 더 내담자에게 다가가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지 않게 하고, 상담과 사회복지 사이의 역할 갈등을 줄여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복지사 경력이 없었던 일부 참여자들 또한 다문화 상담의 경력이 쌓일수록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유연해졌으며, 그러한 태도가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치료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일반적 상담자 발달이론에서 제시한 일반적 특성과 사뭇 다른 다문화상담자 발달의 특수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Skovholt와 Rønnestad(1992)는 전문성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기술하면서,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상담자들은 기존에 배운 것을 상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지만 전문성이 발달해갈수록 전문적으로 개별화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상담 스타일과 개념화 방식이 외부에서 내부 지향적 형태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상담자들은 초기 발달의 과정에서도 기존에 배운 이론과 경험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개별적 노력과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다문화상담자들은 초기 발달과정에서

개별화된 상담 스타일이 일반상담보다 빠른 시기에 발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ue와 Sue(2008)는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은 상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활동 중심으로 내담자에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하는 역할과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전통적인 상담은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나온 가정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모든 집단에 적용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상담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은 소수집단 내담자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적인 역할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발달 과정의 다문화 상담자들이 다문화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한계를 조금 더 유연한 태도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초기 발달의 다문화 상담자들이 전통적인 상담자 역할에서 벗어나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 자원에 관해 숙지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사회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문화 상담에 대한 연구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다문화상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초기 발달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다문화 상담

에 대한 연구들은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자의 초기발달 과정을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으로써 다문화 상담자들이 발달 초기에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심층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나타난 다문화 상담자의 발달 과정은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어 한국적 다문화 상담이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연구참여자를 표집하지 못했다는 한계이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 내담자가 결혼이주여성이었다고, 모든 연구 참여자가 여성이었다. 이는 다수의 다문화 기관에서 기존 연구수행에 대한 피로감과 행정적 어려움으로 개인연구의 참여를 제한하여 다양한 연구참여자 표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상담자들을 표집하여 본 연구결과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상담자의 초기 발달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상담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적합한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 상담 경력의 대부분 짧다는 한계이다.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상담이 시작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문화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발달경험을 면밀하게 이해하기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민지 (2012). 근거이론에 의한 아동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경인 (2007). 한국 집단상담 대가의 발달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화 (2022). 이주민지원기관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대처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인문사회21, 13(6), 385-386.
- 김연희 (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117-144.
- 김은재 (201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규, 손요한 (2020). 현행 법률 상의 전문상담 인프라 분석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8(1), 69-77.
- 나란불락, 유금란 (202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이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1), 35-49.
- 박승민, 김광구,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서울: 학지사.
- 법무부 (2021).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시군구별 결혼이민자 현황
- 서경민 (2015). 집단미술치료가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서희, 김미영 (2019). 서울지역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통합서비스 운영 경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4), 1-21
- 송수경·구자경 (2017). 초심상담자에 관한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8(5), 1-19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현미 (2013). 상담자 발달에 신앙경험이 갖는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옥경, 김연수, 이방현 (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여성가족부 (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 오정희 (2007). 초보 상담자들의 첫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주원 (2013). 다문화 상담자가 지각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향희, 전세경 (2015).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전달 기관의 정책 수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8, 363-394.
- 윤혜미 (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85-108.
- 이지영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

- 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2017).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포럼, 252, 78-91.
- 이현정 (2014).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자들의 문화적 역량 관련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2(2), 519-530.
- 이혜승 (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0(2), 195-216.
- 임한나 (2009). 초심 집단상담자의 발달 특성 : 합의적 질적 분석.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정운, 한재희 (2012). 초심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발달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3(6), 2607-2624.
-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 최한나 (2005).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6(3), 713-727.
- 통계청 (2021). 인구동향조사-지역별 다문화 출생
- 통계청 (2022). 국제인구이동통계-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 한영주 (2010). 내담자가 경험하는 상담의 치료적 전환점 :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재희 (2011). 한국적 다문화상담. 서울: 학지사.
- Blocher, D. H. (1983). Toward a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counselor supervi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1), 27-34.
- Fleming J. (1953). The role of supervision in psychiatric training.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17*, 157-159.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cPhatter, A. (1997). Cultural competence in child welfare: What is it? How do we achieve it? What happens without it?. *Child Welfare, 76*(1), 255-278.
- Patterson, C. H. (2004). Do we nee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6*, 67-73.
- Rita, S. S. & Phyllis, N. S. (2001).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신경림, 김미영 역. 서울: 현문사.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505-515.
- Stoltenberg, C. (1981). Approaching supervision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ounselor complexit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9-65.

- Stoltenberg, Cal D. & Delworth, Ursula. (1988). Developmental models of supervision: It is development-Response to Hollowa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9(2), 134-137.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 York: Sage Publications.
- Sue, D. W. (2006).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Hoboken, N.J. : Wiley
- Sue, D. W. & Sue, D. (2008).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 theory and practice*].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역 서울: 학지사.
- Weaver, H. N. (2005). *Explorations in Cultural Competence: Journeys to the Four Directions*. Belmont, CA; Thomson.

ABSTRACT

## Qualitative Study on Early Development Process of Multi-cultural Counsel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heory with which the early development process of multi-cultural counselors can be explained. Therefore, in-depth interviews with 7 counselors currently working at an organization related with the multi-culture are conducted. For the data analysis, the grounded theory method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 (1998) is used amo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do multi-cultural counselors experience in the early developments and what features do they have?'

From the analysis with grounded theory, 108 concepts, 46 sub-categories and 19 categories are drawn. The paradigm model was constr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ategories, and through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counselors in the early development stage were examined.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flexible counseling approach rather than traditional one is effective for clients from multi-culture. It has in implication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indicating the orientation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in the early development process most of multi-cultural counselors are experiencing in Korea.

*keywords: multi-cultural counseling, counselors early development, grounded theory*